



현대중공업

IBM Resiliency Disaster
Recovery as a Service로
비즈니스 레질리언스
강화

비즈니스 과제

세계 최대 선박 건조 회사도 자연재해로 인한 혼란을 비켜 가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Hyundai Heavy Industries, HHI)은 2016년에 일어난 진도 5.8의 지진으로 냉혹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이 회사의 백업 센터가 울산의 본사 인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HHI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해 복구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든 가동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비 수준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IBM BUSINESS RESILIENCY SERVICES

HHI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을 뒷받침하는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인프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HHI는 한국 IBM 및 IBM Business Resiliency Services®와 함께 경주와 울산이 아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 새로운 재해 복구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새로운 센터는 IBM DRaaS를 이용합니다. 그 결과 HHI의 신축 센터는 진도 7 이상의 지진도 견딜 수 있으며, 복수의 무중단 비상 전원 공급 장치를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계층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고 후 24시간 내에 데이터를 복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별도의 생산 및 공정 시스템을 1주 내에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HHI와 한국 IBM은 정기적으로 가상 IT 재해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재해 복구 시스템 및 절차를 철저히 테스트하여 재무, 구매, 인사, 고객 지원 등을 지원하는 주요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중단 없는 안정성 및 보안을 보장합니다.

대대적 변화

HHI는 IBM Business Resiliency Services와 손잡고 REB(Resilient Enterprise Blueprint)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코어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타 IT 서비스 관련 중대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프레임워크로서 불과 5개월 만에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재해 복구 시스템 및 전략을 마련한 HHI는 이제 시스템 장애 또는 전면적인 가동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HHI는 IBM Business Resiliency Services를 전략적 재해 복구 운영을 위한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IBM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복구 활동에서 쌓은 광범위한 경험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서중헌
현대중공업 ICT 혁신 센터 CIO

HHI와 IBM

292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해 IBM DRaaS에서 당일 복구 시간 목표(Recovery Time Objective) 설정
제로에 가까운 복구 시점 목표(Recovery Point Objective)로 데이터 유출 최소화, 성공적인 데이터 복구 보장

신축된 재해 복구 센터는 진도 7 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복수의 무중단 비상 전원 공급 장치를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계층화



“ 이 전략적 IT 계획으로 주주, 임직원, 고객, 파트너에 영향을 미칠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비즈니스의 미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천보경
현대중공업 ICT 인프라 기술 팀장

숫자로 보는 HHI

12개 국내 사업장

16개 해외 지사

25개 해외 지사

직원 수 **16,000명 이상** - 생산, 연구 개발, 경영, 관리 포함

5개 사업부

- 조선
- 특수 선박 및 해군 선박
- 해양 및 엔지니어링
- 산업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 엔진 및 기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

과거의 IT는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맡은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IT는 비즈니스 부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HHI의 경우 간소화되고 현대화된 정보 기반 제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및 데이터 보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과제입니다. 기존 백업 및 재해 복구는 플랫폼이나 구성의 장애로부터 복구하는 게 아닌, 시스템 차원의 복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가 성공을 거두려면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중단 없는 액세스를 보장하는 레질리언스 재해 복구 센터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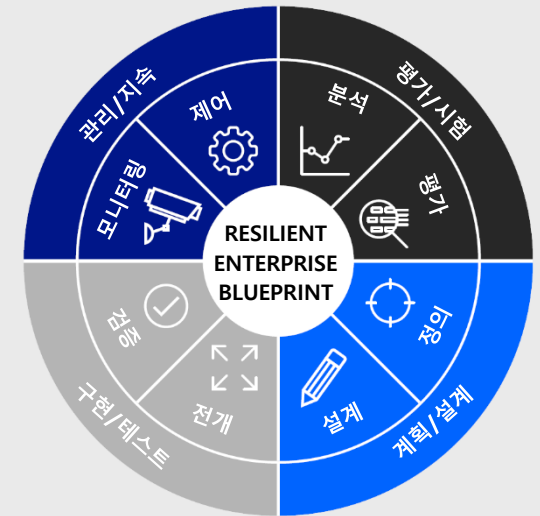
HHI는 향후 몇 년 내에 데이터 센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료하려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상 업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BM BUSINESS RESILIENCY SERVICES

혁신적인 IBM Business Resiliency Services 포트폴리오는 고객의 백업 워크로드에서 유연성과 민첩성을 높일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BM은 54개국에서 300여 개 글로벌 딜리버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중단 없는 비즈니스 운영 및 레질리언스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BM BUSINESS RESILIENCY SERVICES 7레이어 프레임워크

- 전략과 비전
- 조직
- 프로세스
- 애플리케이션
- 데이터
- IT 인프라
- 시설



“현대중공업은 핵심 사업을 지원하는 각종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때문에 복잡한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환경은 레질리언스 솔루션 및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IBM 레질리언스 팀은 현재 상태 평가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전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중에서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을 분류한 다음 현대중공업 재해 복구 시스템 계획, 설계, 아키텍처 개발, 구현,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5개월 이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에서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IBM 팀은 현대중공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류중기
IBM Resiliency Services 수석 경영 컨설턴트 겸 사업 개발 책임자



© Copyright IBM Corporation 2018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서울국제금융센터
Three IFC

전화번호 : (02) 3781-7114

www.ibm.com/kr

2018년 8월

Printed in Korea

All Rights Reserved

IBM, IBM 로고, ibm.com은 미국 및/또는 다른 국가에서 IBM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상기 및 기타 IBM 상표로 등록된 용어가 본 문서에 처음 나올 때 상표 기호(® 또는 ™)와 함께 표시되었을 경우, 이러한 기호는 본 문서가 출판된 시점에 IBM이 소유한 미국 등록 상표이거나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상표임을 나타냅니다.

해당 상표는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등록 상표이거나 관습법적인 상표일 수 있습니다. IBM의 최신 상표 목록은 ibm.com/legal/copytrade.shtml 웹 페이지의 "저작권 및 상표 정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회사,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다른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IBM 제품과 서비스를 참조한 경우에도 IBM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